

## 인터넷상에서 홈페이지 제작방법 및 활용방안

경희대학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김정남, 김명호, 최태규, 김승태

인터넷이 세상에 알려진 시기는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다. 불과 4 ~ 5년 전만 해도 어느 특정계층의 전유물인양 취급되어 왔지만 지금에 와서는 누구에게나 친숙한 대상이 되었고 심지어 지금의 세상을 가리켜 인터넷 세상이라고 언급하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많은 정보가 Cyber세계에서 숨쉬고 있음을 누구나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현재 인터넷이란 매개체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뉴스, 스포츠, 시사, 의학, 교육, Shopping, 인터넷 메일, 인터넷 채팅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정보들이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동안 인터넷에 대한 무지의 탓으로 많은 부분을 간과하고 지내 왔음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많은 인터넷의 모든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많은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인터넷의 많은 분야가 다 매력적이라 하겠지만 인터넷에서 자기만의 공간인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만큼 흥미로운 일도 없을 것이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일일이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 Tag을 익히거나 외국어로 된 프로그램으로 어렵게 홈페이지를 제작하여야 했지만 이전 HTML을 외울 필요도 없고 외국어로 된 프로그램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 하면 WYSIWYG(what you see is what you get)방식의 국내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고, 그것은 마치 DOS상에서 컴퓨터를 사용해야 했던 사람이 Windows를 처음 접했을 때에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상당히 쉽고, 재미있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다.

인터넷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홈페이지가 있고 물론 앞으로는 더 많은 종류의 홈페이지가 나타날 것이다. 홈페이지는 주로 교육기관(대학교)을 위주로 발전해 왔고 최근에는 기업을 소개하고 세계 여러 나라와 정보를 교환하는 창의 역할을 중심으로 발전해 가는

추세이다. 그리고 교육기관에서는 도서관의 자료를 전산화하여 이를 웹 상에 올려놓는 전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상에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수업하는 사이버 유니버시티(cyber university)도 강력히 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하는 홈페이지 제작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본 학회에서 활용되었어야 함은 어쩌면 당연한 일 이었다. 홈페이지 만들기 위한 제작도구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지면을 통해 전부를 소개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 한 일이다. 하지만 우선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HTML editor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홈페이지를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서는 포토샵 아도비 ,후레쉬, 자바 스크립트, Cool 3D등 많은 프로그램과 홈페이지를 설계할 수 있는 기술, 기획력, 자료정리 및 요약능력 등이 필요하며 제작된 홈페이지를 서버에 전송할 수 있는 Ftp (file transfer protocol)프로그램 과 웹 상에서 홈페이지를 감상할 수 있게 하는 Web browser 프로그램 이 필요하다.

우리는 학회홈페이지 제작을 통해 대한방사선치료기술학회를 전세계의 네티즌(net citizon)에게 알리고 교류하며, 회원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사이버 회의실을 통해 전국에 어떤 회원이라도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살아 있는 학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본 학회 홈페이지 메뉴는 학회 장 인사말, 학회소개, 논문, 게시판, 자료실, 관련 사이트, 사진첩 등이 있으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다양하고 유용한 메뉴를 계속 보강해 나갈 것이다.